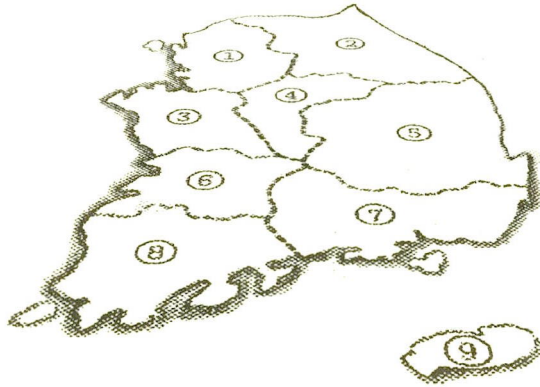


전국성폭력상담기관



① 서울·인천·경기

한국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열람터 02-576-7128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부설 성폭력상담소 02-269-2962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성상담소 02-646-8858
내일신문 성상담소 02-339-7480
수원여성인권진흥원 부설 성폭력상담소 0331-32-7780
성남여성인권진흥원 부설 성폭력상담소 0342-730-1370
김포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0341-86-7942
인천여성인권진흥원 부설 성폭력상담소 032-529-2546
강화여성인권진흥원 부설 성폭력상담소 032-934-1901
대한가족계획협회 인천광역시지부 부설 성폭력상담소
032-424-4592
청소년 대화의 광장 02-253-9344
평택 가정법률상담소 0333-667-5976
한국여성학자협의회 부설 기독교여성상담소 02-266-8275

② 강원

강릉성폭력피해상담소 0391-647-3383
원주 가정법률상담소 부설 성폭력상담소 0371-731-4336
춘천성폭력피해상담소 0361-57-4689

③ 대전·충남

대전 YWCA 여성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042-255-0004
대전 카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여성문제상담소(피해자보호센터)
042-636-2033
대한가족계획협회 대전충남지부 성폭력상담소
042-526-4000
충남성폭력피해상담소 0417-572-2000

④ 충북

대한가족계획협회 충북지부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0431-274-7476
청주여성인권진흥원 부설 성폭력상담소 0431-272-9953

⑤ 대구·경북

대한가족계획협회 대구경북지부 부설 성폭력상담소
053-566-1901
포항여성회 부설 가족성상담소 0562-82-1470
구미 사랑의 전화 0546-455-0071
대구여성인권진흥원 부설 성폭력상담소 053-475-8084

⑥ 전북

성폭력예방지원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 디딤
터) 0652-83-9647
익산성폭력상담소 0653-51-0265
전북여성인권진흥원 부설 성폭력상담소 0652-87-732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군산지부 부설 성폭력상담소
0654-42-1570

⑦ 부산·울산·경남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0551-44-8400
대한가족계획협회 부산지부 성폭력상담소 051-624-5581
부산성폭력상담소 051-514-3330
부산여성인권진흥원 부설 성폭력상담소 051-817-4321
성폭력피해상담소 051-628-0830
울산여성인권진흥원 부설 성폭력상담소 0522-211-1205
진주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성상담소 0591-762-5339
창원여성인권진흥원 부설 성폭력상담소 0551-66-3722

⑧ 광주·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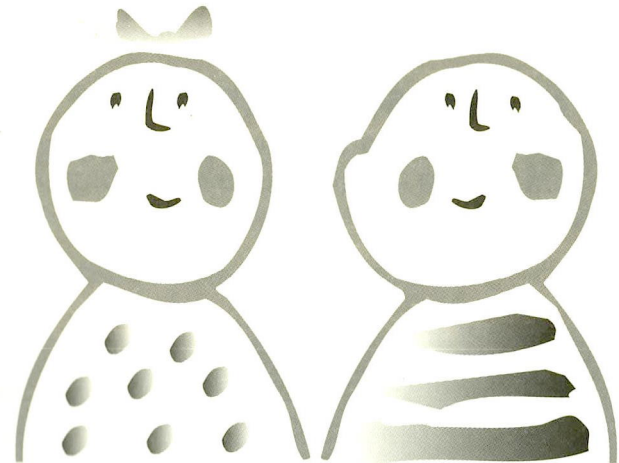
광주여성인권진흥원 부설 성폭력상담소 062-363-7739
광주여성회부설 가족과 성문제 상담소 062-225-0152
대한가족계획협회 광주전남지부 부설 성폭력상담소
062-671-4050
전남성폭력상담소 0661-755-8033

⑨ 제주

제주여성민우회 부설 여성상담소 064-49-0261
제주 YWCA 여성지원센터 064-55-3040

너 무슨 생각하고 있니?

청소년성폭력예방비디오



유 사단 한국성폭력상담소
법인

기 증

청소년성폭력 예방비디오 〈너 무슨 생각하고 있니?〉

〈너 무슨 생각하니?〉를 이런 목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너 무슨 생각하고 있니?~청소년성폭력예방비디오〉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이트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르게 사회화되는 과정과 여기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이해로 인한 의사소통 단절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단절이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너 무슨 생각하고 있니?~청소년성폭력예방비디오〉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문화에 대한 비판능력을 갖춘 주체적인 청소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대 상 : 중학교 여·남학생, 청소년 성교육 지도교사, 학부모 등
- 시 간 : 23분

다음과 같은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교육/각종 청소년 모임/청소년 관련 사업 단체 및 지도자 교육/청소년 상담원 교육/성폭력상담원 교육/사회사업가 교육/경찰·사법부 관계자 교육 등

이 팸플렛은 〈너 무슨 생각하고 있니?~청소년성폭력예방비디오〉에 대한 소개와 활용방법을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비디오의 목적과 내용뿐 아니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교육을 실시할 때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비디오 시청 전후에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토론자료와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청소년 성교육자료와 전국 성폭력상담기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하였습니다.

구입방법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방문구입/전화주문(576-7128)

〈너 무슨 생각하고 있니?〉를 추천합니다

이 시대는 진정 '성교육이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정보매체의 발달은 온갖 나쁜 성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난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출시된 〈너 무슨 생각하고 있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양성(兩性)이 서로 존중하는, 아름다운 양성문화(兩性文化)를 형성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다.

강지원(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나는 청소년 성폭력예방 비디오 〈너 무슨 생각하고 있니?〉를 찍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다른 친구들도 이 교육비디오를 보면 많은 공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비디오를 보면 성폭력이 우리와 먼 일만이 아니며, 잘못된 성문화에 익숙해지면 성폭력과 같은 무서운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자신의 소중함을 알게 될 것이다. 많은 친구들이 함께 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박지성(중학교 3학년 재학중, 본 비디오 인터뷰 대상자)

남녀 학생이 찾아왔다. 임신 4개월이었다. 남녀공학에 다니는데 수학여행에서 그렇게 된 것이었다. 무조건 부모가 모르게 도와달라고만 했다. 양가 부모가 만난 자리에서 두 남녀는 책임전가에 바빴다. 신체적인 능력은 있으되 결과를 책임지지 못하는 청소년의 성문화, 이제 '면허'가 필요하다.

오한숙희(여성학자, 방송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좋아하는 사람끼리 굳이 말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하나요? 그냥 눈치로 코치로 통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의 관계라면야 무얼 더 바랄까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조차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른다는 거죠. 하물며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다? 그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좌절을 겪게도 되고... 특히 남녀 사이의 민주적인 의사소통!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청소년들은 이 비디오를 통해 배울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명화(서울YMCA 청소년상담실 실장)

우리는 어디에서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 남자는 늑대이고, 여자는 내숭 떠는 존재로 사회화되고 있다. 이러한 왜곡된 이성관은 잘못된 만남을 만들어가며, 남녀간에 의사불통을 가져와 결국 성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남자는 여자든 성에 대한 솔직한 자기표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답게 보인다. <너 무슨 생각하고 있니?>는 더 이상 아니오(NO)를 예(YES)로 받아들이지 않는 건강하고 성숙한 인간 관계로 안내할 수 있는 지침서라고 여긴다.

이순열(오류중학교 교사)

토론과 함께 비디오교육을 진행하세요

<너 무슨 생각하고 있니?~청소년성폭력예방비디오>로 교육을 진행할 때, 아래 자료를 활용하여 비디오 시청 전과 후에 학생들의 토론이 함께 이루어지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비디오 시청 전 토론

- 성폭력이란 무엇일까요?
- 서로 아는 사이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 어떤 사람이 '괜찮은 여자' 혹은 '괜찮은 남자' 라고 생각하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나요?
- 자신이 여성/남성이기 때문에 여성/남성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자신의 이성친구가 남성/여성답게 행동하기를 바라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비디오 시청 후 토론

1. 포르노 문화와 로맨스 문화

- 많은 청소년 남학생들이 포르노 문화(잡지, CD, PC통신, 비디오, 컴퓨터 게임 등)와 쉽게 접하게 된다고 합니다. 남학생들이 이러한 포르노 문화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우게 될까요?(강사는 여성관, 성의식, 남성다움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많은 청소년 여학생들이 로맨스 문화(여학생 잡지, 드라마, 로맨스 소설, 순정 만화 등)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이러한 로맨스 문화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우게 될까요?(강사는 낭만화된 성과 사랑, 여성다움과 남성다움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서로 다른 문화(포르노/로맨스)를 통해서 서로 다르게 사회화된 남성과 여성이 친구가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될까요?(강사는 상대방에 대한 왜곡된 이해에서 발생하는 오해 및 의사소통 단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여성과 남성 사이의 의사소통의 단절

- 스티커 사진기 안에서 준영(남)이 소영(여)의 어깨에 손을 올렸을 때 혹은 키스하려고 했을 때 왜 소영이 어색해했을까요? 소영은 준영의 행동을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싫은데도 단호히 거절하지 못한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 소영이 준영에게 거부의 의사를 전달했나요? 말로 하지 않았다면, 소영은 준영에게 '싫다'는 의사를 어떻게 표현했나요?
- 왜 소영은 준영에게 거절하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 왜 준영은 거부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소영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려 했을까요?
- 상대방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 옳은 것일까요? 준영이 어떻게 해야 좋았을까요?

3. (데이트)성폭력

- 성폭력이란 무엇일까요?
- 이성친구 사이에서도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데이트성폭력'이 발생하나요?
- 준영의 행동이 성폭력에 해당되나요? 왜 그런가요?
- 노래방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 소영과 준영의 사이에 왜 오해가 생겼을까요?
- 평소 소영과 준영의 태도가 노래방의 사건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나요? 스티커 사진기에서의 일과 관련해서 생각해봅시다.
-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성폭력은 어떻게 다를까요?
- 성폭력과 권력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 성폭력에 해당되는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일방적 행동이 여러번 반복되어야만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 한 번이라도 강제적이거나 일방적이면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나요?

4. 건강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 이성친구 사이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색한가요? 왜 그럴까요?
- 성과 관련된 주제(예:키스)에 대해서 이성친구 사이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색한가요? 왜 그럴까요?
- 어떤 행동이 분명하지 않은(혼란스러운) 의사를 전달하게 될까요? 만약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분명하지 않아 혼란스럽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여성이 아무 말 하지 않거나 강한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남성은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해도 되나요?
- 어떻게 하면 이성친구에게 자신의 의사를 좀더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비디오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성문화를 바로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면서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깨우치고 함께 공유하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12명 중심의 소집단으로 모여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활발한 성교육을 통해 훈련이 되지 않은 집단이라면 '성'을 주제로 솔직한 이야기를 여러 사람 앞에서 털어놓는 것이 어색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① '성'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소집단별로 전지를 나누어 주고 은어나 속담을 포함하여 무엇이든지(명사, 형용사, 동사, 대명사 등)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이를 전지에 적게 합니다.
- ② 소집단에서 작성한 전지를 교실 칠판에 전지를 하고 전체집단이 이를 공유하게 합니다.
- ③ 선생님(진행자)이 이를 보고 학생들이 주로 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왜 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꺼려하는지를 정리해줍니다.
- ④ 비디오 시청 전 토론주제 가운데 하나씩을 소집단에서 이야기해보게 합니다.
- ⑤ 소집단별로 한 사람씩 나와 자기 집단에서 토론한 것을 정리해서 발표합니다.

- ⑥ 선생님이 이를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비디오를 어떻게 보아야하는지를 간단히 설명한 후 비디오를 시청합니다.
- ⑦ 비디오를 보고 난 후 다시 소집단별로 ⑤에서 토론한 주제와 연결하여 시청 후 토론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하게 합니다.
- ⑧ 이를 발표합니다.
- ⑨ 선생님이 이를 정리해서 이성교제와 성문화, 성폭력의 관련성을 설명합니다.
- ⑩ 마무리 시간에는 건강하고 당당한 이성교제가 되기 위해서, 또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남학생이 어떤 행동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정하고 이를 지키겠다는 다짐의 시간을 갖습니다. (12~13p. '남성/여성이 할 일' 참고)

위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교육시간이나 교육대상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교육에 참고하세요

〈너 무슨 생각하고 있니?~청소년성폭력예방비디오〉로 교육을 진행할 때 선생님께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발간한 〈성폭력에 관해 알고 싶은 몇가지 것들(1998)〉, 〈데이트강간 세미나 자료집(1992)〉에서 발췌하여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직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이란 무엇인가요?

성폭력은 강간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음란전화, PC통신이나 삐삐 등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불쾌한 언어와 추근거림,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성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너 무슨 생각하고 있니?~청소년성폭력예방비디오〉와 관련하여 청소년 성폭력과 데이트성폭력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시다.

청소년 성폭력

청소년 성폭력은 만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합니다. 청소년 성폭력은 1996년 동네 사람들 14명에 의한 13세 소녀가장의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자살시도, 중3 여학생의 성폭력에 의한 임신과 교실에서의 출산, 중학교 교장 선생님의 여학생들 성추행 등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들이 심각하게 보도되면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청소년 성폭력의 경우는 어린이나 성인 피해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윤간, 강도강간 등의 특수강간의 비율이 높고 남성피해자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는 불량배, 학교 폭력배 등이 집단 폭행, 강도, 흉기사용, 침입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행하는 데 청소년이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친족내의 피해, 선배나 동급생에 의한 피해(데이트 성폭력 포함), 교사나 강사 등에 의한 성폭력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정확한 성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청소년들이 피해자가 될 경우, 임신·낙태 등의 신체적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고, 이러한 피해가 학업중단·일탈행위 등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 성폭력

데이트성폭력이란 '이성간의 데이트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나 조종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동의없이 일어나는 성행위를 의미합니다. 데이트 상대에 의해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112건으로 전체상담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강간입니다. 데이트 중인 남녀간에 일어나는 데이트 성폭력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도 이것을 성폭력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다만 윤리적인 잘못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입니다

1) 성폭력은 낮은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성폭력은 아는 사람(데이트 상대나 애인, 선후배, 직장 동료나 상사, 이웃집 아저씨나 아는 오빠, 아버지 또는 친인척 등)에 의한 경우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 성폭력은 젊은 여성들에게만 일어난다?

성폭력 피해는 생후 만 4개월의 아기부터 70세 이상의 할머니까지 나이에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중 30%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고, 20% 정도가 13~19세의 미성년자입니다.

3)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강간을 유발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노출이 심한 여름에 성폭력이 더 많이 발생해야 하지만, 실제로 계절과 상관없이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

성폭력이 성충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면 우발적인 사건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폭력은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일어납니다. 성폭력은 가해자가 자신의 억제된 분노 등을 약자인 여성이나 어린이에게 표출하는 것임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5)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강간은 많은 경우 말로 위협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때리거나 흉기로 위

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을 느끼면서 무력해져 저항하기 어렵게 됩니다.

7) 강간범은 정신이상자이다?

대다수 가해자는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성에 대한 비하의식과 잘못된 성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이 겪는 소외감, 열등 의식, 박탈감, 분노 등을 표출할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를 택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성교육 관련 자료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

성폭력에 관해 알고 싶은 것들 / 1998

건강한 성 만들기:중학교 성교육 지침서 / 1997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 창출을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 :성문화와 성폭력에 미치는 음란물의 영향 / 1997

청소년 성문화를 통해본 성폭력 실태 및 대책 / 1996

데이트강간 세미나 자료집 / 1992

그 외

《우리가 성에 관해 알고 싶은 것, 그러나 하이틴 로맨스에도, 포르노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 김성애·이지연 지음, 또 하나의 문화 / 1998

《성과 행복》, 서울특별시교육청 / 1998

《성 바로알기》, 부산 여성사회교육원 성교육위원회 편, 위암출판사 / 1997

《성, 똥땅 알려 주세요》, 이순열·배병주 지음, 한빛 / 1997

《섹스북》, 쿼터 아멘트 지음, 이웅숙 옮김, 박영출판사 / 1995

《성, 바로 아는 내가 좋다》, 이규미 지음, 회성출판사 / 1994

성폭력을 이렇게 예방합시다

남성이 할 일



- 상대방(여성)에게 성적 행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의 거부 의사(언어, 행동 등)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습니다.
- 상대방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평소와 자신과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서 충분히 의사소통 합니다.
-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 음담패설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음담패설이 이루어지는 문화에 대해서 문제제기합니다.
-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상품화하는 우리사회의 성문화에 대해서 문제제기 합니다.
- 성폭력의 실태에 대해서 자신부터 잘 알아야 합니다. 특히, 성행위와 성폭력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성폭력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이해합니다.
- 남녀평등사상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합니다.

여성이 할 일



- 평소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합니다.
- 성에 대한 가치관, 행동범위의 한계에 대해 분명한 결정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예”와 “아니오”가 뒤섞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의사표현을 분명히 합니다.
- 불편한 성적인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시합니다.
- 외부와 차단된 공간(노래방, 비디오방 등)에 단둘이 있게 되는 경우 자신의 생각과 상대방(남성)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 성관계의 의사가 없는 한 숙박업소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어디서든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올 수 있도록 비상금을 소지하고, 콜택시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다닙니다.
- 평소 규칙적인 운동과 체력단련을 통해 힘과 자신감을 기릅니다.
-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런 곳입니다

1991년 4월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뜻을 함께 하는 여성들이 모여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 이래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들과의 심리적·법적·의료적 상담을 통해 이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였으며, 성폭력의 원인 및 예방 대책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인간중심적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상담

- 24시간 성폭력 피해에 관해 심리, 의료, 법률분야의 전문상담을 합니다.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피난처인 열림터에서 상담 및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일반상담 : 529-4271~2

위기 및 야간상담 : 573-1888

열림터 상담 : 529-4271~2

조사·연구

- 성폭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원인 및 대책을 연구합니다.
- 성폭력 및 성문화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세미나·토론회 등을 개최합니다.

교육

- 각 분야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교육을 실시합니다.
- 성폭력전문상담원, 지킴이, 나눔이 육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홍보·출판

- 성폭력의 실태 및 예방대책을 홍보합니다.
- 계간지 <나눔터>·보고서·자료집 등을 간행하며, 성폭력예방비디오를 제작합니다.

대외협력

- 국내·외 단체들과 자료 및 정보를 교환하며, 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연대활동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연대활동을 하였습니다

- 김부남 사건대책위원회(1991년)
- 김보은·김진관 사건 공동대책위원회(1992년)
- 성폭력특별법추진특별위원회(1991~1993년)
- 윤금이사건 공동대책위원회(1992년)
-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1994년~)
- 김교사폭행사건 공동대책위원회(1995년)
- 남녀고용평등법내 간접차별·직장내 성희롱금지조항신설과 근로자파견법 제정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995년)
- 황수연씨 구속수사와 학교성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996년)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1996년~1998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근절하고, 건강한 성문화를 정착시키는 본 상담소의 활동을 위해서 여러분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후원회원 및 기부금 문의전화 : 576-7128